

‘IPO 흥행’ 케이뱅크… 수익성 ‘인뱅 2막’ 성패 가를 변수

청약증거금 10조, 경쟁률도 무난
작년 3분기 순이자마진 소폭 하락
개인사업자 대출부문 긍정적 성과
연체율 관리·NIM개선 등 검증필요



케이뱅크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일반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에서 청약증거금 10조원을 모으며 무난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겉으로 보면 흥행에 성공한 셈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상장 이후로 옮겨가고 있다. 앞으로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성 확보 여부가 기업가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20일과 23일 양일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청약증거금은 약 10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합 경쟁률은 약 140대 1 안팎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별로 보면 지난 24일 기준 NH투자증권 134대 1, 삼

성증권 135대 1, 신한투자증권 140대 1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일반청약 흥행에는 최근 은행주 강세 흐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 은행지

수는 1월 2일 1297.13에서 23일 1780.11까지 오르며 37% 상승했다. 4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기대가 반영되며 투자심리가 개선된 점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모가가 밴드 하단에서 결정되면서 밸류에이션(이익 대비 주가) 부담이 완화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케이뱅크는 피어그룹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 1.8배를 적용했으나, 공모가 확정 과정에서 약 20% 할인되며 실질 PBR은 약 1.4배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PBR 약 1.61배인 카카오뱅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수준이란 평가다.

다만 상장 흥행이 곧 실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을 바탕으로 어떤 수익 구조를 구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금리 변동성

확대라는 환경 속에서 순이자마진(NIM) 개선, 중저신용자 대출 관리, 비이자 수익 확대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외형 성장의 속도보다 수익의 질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가 ‘인터넷은행 2막’의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현재 케이뱅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은 2024년 1.91%에서 지난해 3분기 1.38%로 0.53%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실명계좌를 제휴해 외형을 키웠지만,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 0.1%에서 2.1%로 올렸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부문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24년 말 1조 1500억원에서 2025년 말 2조 300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1.83%에서 0.62%로 하락해 성장과 건전성을 동시에 관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케이뱅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네이버페이와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기반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여신을 정교하게 선별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데이터 기반 확장이 실제로 연체율 관리와 NIM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장 이후 실적 흐름이 ‘인터넷은행 2막’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형 성장만으로는 더 이상 높은 밸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가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롯데·비씨카드 수장 교체… 경영쇄신 나서

롯데-정상호, 30년 경력 내부통 인사
비씨-김영우, 본격 체질개선 나설듯

롯데카드와 비씨카드가 수장 교체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 롯데는 조직 안정을 통한 내실 다지기에, 비씨는 쇄신을 통한 체질 변모에 집중할 전망이다. 카드업계 수익성 악화, 신뢰 회복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새 대표의 역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롯데카드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 후보에 정상호 전 롯데카드 부사장을 단독 추천했다. 정 후보자는 내달 1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대표이사로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내부 출신 인사를 신임 대표에 내정하면서 조직 안정에 집중할 전망이다. 실제 정 후보자는 30년 경력의 내부통 인사다. 1963년생인 정 후보자는 옛 LG카드, 현대카드를 거쳐 삼성카드 전략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020년 조좌진 대표 체제 출범 시기에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후보자



김영우
BC카드 대표이사 후보자

맞춰 롯데카드에 새롭게 합류했다. 조 대표가 취임 직후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려온 외부 인사 중 한 명이다.

롯데카드 관계자 “회사 내부 사정에 밝아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사고 수습과 경영 회복이라는 큰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빠르게 조직 안정을 이끌어 낼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씨카드도 5년 만에 수장이 바뀐다. 비씨카드는 지난 19일 임추위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에 김영우 전 KT 전무를 내정했다. 1959년생인 김 후보자는 비씨카드의 모회사인 KT에서 재무실 IR 담당, 글로벌사업개발본부장, 글로벌사업본부장 등

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KT그룹 경영실장 전무를 역임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비씨카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3연임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의 후임이어서 비씨카드가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이라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 대표 체제의 체질 개선은 글로벌과 신사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비씨카드 임추위는 “재무, 전략, 글로벌, 신사업 등 경영 전반의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영 전문가로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비씨카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경영자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양사 모두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신임 대표들의 수익성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실제 롯데카드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비씨카드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나 업계 전반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새 먹거리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융위, 금리인하요구 자동 비대면 서비스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요청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뒤 금융회사의 수용을 받아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청이 돼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금융 소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

자를 선택해 가입한다. 이후 자산 연결을 완료한 뒤 대출 계좌를 선택해 금리인하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13곳이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국토부,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

6개 기술에 최대 5억씩 총 30억 규모

국토교통부는 25일 인공지능(AI)을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AI시티’ 구현을 위해 ‘2026년 AI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해온 스마트시티혁신기술실증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실제 도시 환경에 적용·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 혁신 기술을 도시 현장에서 실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모 대상은 도시 분야 AI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도시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분야는 AI도시 인프라, 교통·물류, 안전·생활, 에너지·환경, 헬스·교육 등이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0억 원이다. 6개 기술을 선정해 기술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은 계약 체결 후 오는 12월까지 실증을 수행하며, 충분한 실증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이후에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30일로, 4월 중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다음 달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다. /성채리 인턴기자

IBK기업은행

아이원뱅크 등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IBK기업은행은 포용적 공정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타행이체수수료 전면 면제’ 혜택을 올해에도 지속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혜택은 기업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i-ONE Bank·기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 규모나 거래 실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돼 영세 사업자와 초기 창업기업도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차헬스케어와 협력… AI기반 서비스

GS건설 자이(Xi)가 주거단지 커뮤니티에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GS건설은 차바이오텍 계열사인 차헬스케어와 협력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단지에 ‘헬스케어 컨시어지’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헬스케어 컨시어지는 입주민이 단지 내에서 건강·웰니스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다. 외부 병원 예약과 검진 후속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헬스케어 컨설턴트가 상주해 입주민의 건강·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식단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GS건설이 차헬스케어와 협업해 적용 예정인 ‘헬스케어 컨시어지’. /GS건설

입주민은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AI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라이프 케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성수1지구에 처음 적용되며, 향후 다른 단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문화 파트너십을 통해 입주민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